

UNIX 및 실습 중간고사

※ 명령 입력 화면과 결과 화면을 모두 캡처하여 파일(20120123_홍길동.pdf) 작성하고 메일 (kgu@mmu.ac.kr)로 제출. (메일 제목 : UNIX1 중간고사)

1. cara.mmu.ac.kr 에 UX_MID 디렉토리 생성
2. UX_MID로 이동 후 현재 디렉토리 화면에 출력
3. test1, test2, test3, test4 디렉토리 생성
4. test1 디렉토리로 /usr/include 아래 있는 모든 파일(디렉토리 포함) 복사
5. test2 디렉토리로 /etc에 있는 파일 복사
6. test1 디렉토리에서 내용 중 'Windows' 단어가 있는 파일들을 찾아 이름들을 화면에 보이시오.
7. test2 디렉토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test5를 UX_MID에 만들기
8. test2/services의 마지막 10줄로 test5/my_message.txt 파일 만들기
9. /usr/include 에 있는 *.h 중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파일들만 test3 디렉토리로 복사
10. test3에 있는 파일들 중 크기가 512보다 작은 파일들의 수 출력
11. test4 디렉토리 안에 다음 내용의 파일 news1 작성

'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개발자 제임스 고슬링이
구글에 기술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건 오라클 입장에 힘을 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라클에 인수된 뒤 썬을 나와 잠시 구글에서 일했던 그가
구글에 비판적이고 오라클이 옳다는 견해를 드러내 눈길을 끈다.

미국 씨넷은 30일
"구글때문에 썬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오라클이 안드로이드에 자바 코드를 사용한 방식 때문에 구글을 고소한 것은 옳다"는
고슬링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제임스 고슬링은
지난 1995년 썬에서 일하며
오늘날 수십억개 디지털기기에서 돌아가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인물로 묘사된다.
그에 따르면 구글 안드로이드는 오라클 소송 전부터 자바 특허 관련 문제를 내재해왔다.
단지 특허소송이 썬의 기업성향에 맞지 않았을 뿐이란 얘기다.

12. news1의 내용 중 '자바'를 'JAVA'로, '썬'을 'SUN'으로 수정한 파일 news2 생성
13. news1의 내용 중 '구글'을 'Google'로, '오라클'을 'Oracle'로 수정한 파일 news3 생성
14. news1, news2, news3을 덧붙인 파일 UX_MID/ex14.out 생성
15. UX_MID/ex14.out 파일에 행(line) 번호를 붙인 파일 UX_MID/ex15.out 생성
16. UX_MID 아래 모든 파일의 속성을 0644로 수정
17. UX_MID 아래 모든 파일의 속성을 자세히 출력한 결과를 UX_MID/ex17.out에 저장
18. 지금 작업 중인 사용자 수를 출력하고, 사용자들의 login id를 UX_MID/ex18.out에 저장
19. du 명령으로 UX_MID 아래 모든 디렉토리 크기 출력한 결과를 UX_MID/ex19.out에 저장하고, test1, test2 디렉토리 삭제
20. 현재시간을 출력한 결과를 UX_MID/ex20.out에 저장